

한국 미술계가 한국적 알리바이를 작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미술로서의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미술에 대한 독자적 정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 적이 있다. 나는 한국 미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미술의 변방이나 혹은 밖에서 내 미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컨셉이 선행한 다음 작업을 위해 재료를 구하러 다니고, 형상을 만들고 하는 미술 행위에 대해 회의적이다. 더구나 당면한 한국의 제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표면적인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실제 자신의 정신이나 일상세계 속에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으면서도 작품을 할 때에는 정치적, 추상적 유행 관념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미술은 우선 제 손 안에서 유희적이어야 하고, 미적이어야 한다. 나는 미술은 작가의 두 손과 함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순간 속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 가운데서 컨셉이 발생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때 발생하는 컨셉이 우리 시대나 사회 문제와 별개가 아닐 것이다. 내 상상력의 원천은 매일 밤 읽고, 쓰고, 그리는 책상 위에서의 소박한 표현 행위에서 비롯된다. 나는 문학 작품, 신화, 철학 등의 서적을 읽거나 신문 등을 읽으며 그날치의 일기를 쓰고, 잠자기 전에 작은 드로잉을 한다. 작은 드로잉엔 내가 그날 그날에 만난 내면적 감흥이나 외부적 형상들이 그려진다. 나는 그 드로잉을 통해 내 상상력이라는 미술적 기능의 한 부분을 키운다.

이전시의 제목인 **"Fiminism Fnosticism"**는 나의 이름인 이피(Lee Fi Jae)의 Fi와 페미니즘, Fi와 그노시스를 연결해 조어로 만든 것이다. 이 전시의 작품들을 제작한 기간의 나를 돌아보자, 나는 이 작품들을 제작하는 기간 동안 남성들이 참여를 제한해온 여성들만의 제사, 그 제단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제단은 불교식, 힌두식, 서양 종교식도 아닌 나만의 그노시스를 품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나는 페미니즘이 미술이라는 형식과 결합하면 그 스펙트럼은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고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 왔다. 이 여성들의 제단 위에 나의 여성성과 존재성과 인식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2016년 개인전 이후 우리나라에선 거대한 촛불 혁명이 있었고, 나는 그 시위의 나날들을 보낸 다음 스페인 빌바오에 머물렀다. 나는 서울을 떠나 낯선 곳에 몇 달씩, 몇 년씩 체류할 때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강렬하게 내 한 몸, 여자의 몸인 나를 강렬하게 느꼈다. 낯선 거리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온 낯선 여자였다. 나는 거대한 땅 위를 낯설게 떠도는 하나의 작은 섬이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으로 벗겨진 몸일 뿐이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건, 내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어떤 용무로 그곳에 왔건 그들은 일단 내 몸으로 나를 판단했다. 여자들에게 위험한 곳이라고 알려진 지역에 숙소 건물이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의 시선의 권력을 온몸에 받는 느낌이 있었다.

레지던스에선 우선 나는 "촛불을 든 백만 개의 손을 위한 만달라 프로젝트"를 그렸다. 촛불 혁명은 나에게 몸의 혁명이었다. 매주 토요일 밤 백만 명이 일단 추위를 뚫고 한 장소로 나오지 않았는가. 그들이 그들의 몸에 달린 손을 쳐들지 않았는가. 성대를 울려 다 같은 함성을 지르지 않았는가. 다 빛을 흔들지 않았는가. 나는 낯선 타국에서 오히려 선명하게 다시 떠오르는 그 손들을, 그 몸들을 불러오고자 했다. 나는 그 손들을 클로즈업한 다음, 그 광장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의 신화를 선물하고 싶었다. 우리는 그 가을에서 겨울까지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고 생각했다.

내 회화 작품들은 고려불화의 선과 색채를 원용하는데 나는 이 기법으로 서양 회화의 등장 인물인 '천사'를 그려보고 싶었다. 천사를 그리는 것은 일종의 메신저, 심부름꾼, 징조를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천사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용하는 '신'보다 그 몸을 중앙에 놓아드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천사를 불러옴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죽어간 많은 영혼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 죽음 소식을 들으면 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복합된 감정이 치솟았다. 나는 제단화를 구상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단화엔 신이 가운데 좌정하고, 천사는 위나 뒤로 밀린다. 그와 반대로 나는 천사를 가운데 배치하고, 동서양의 신들은 천사 날개의 품에, 폭탄과 화살들을 사방에 배치했다. 천사는 하늘과 땅,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명사와 다른 품사들 사이의 조사나 전치사처럼 사이에 사는 메신저이다. "모든 종교의 천사"는 주객전도, 색채와 내용을 전도시켜 본 것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생각은 나의 회화의 계속되는 화두다. "내 몸을 바꾸기 위한 신체 진열대"는 여성의 몸이라는 것을 벗고 입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고 상상해 보았다. 마치 한 생 안에서 윤회를 거듭하는 우리처럼 말이다. 내 한 몸이지만 여러 몸들인 진열장을 상상해 보았다. 8쪽의 그림으로 제작했다. 8쪽의 몸들을 걸어두는 공간을 상상하자 병풍이 되었다. 나는 병풍 안에 내 몸 8개를 걸어놓고 날마다 바꿔 입는 상상을 했다. 누가 나를 다치게 하면 나는 또 다른 몸을 입을 수 있었다.

"난 자" "의" "난자"는 3쪽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가운데 여성의 몸이 있고, 양쪽에 그 여성의 알들이 배치되어 있다. 여성의 '알' 속엔 여성이 키우지 못한 무수한 생명들이 들어 있다. 여성의 몸에 가해진 시선들, 금들, 억울한 누명들, 폭력들, 폭언들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무수한 차별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제 알의 보따리들을 열어보지도 못하게 하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떠나보낸 무수한 알들을 여자인 나의 제단에 평등하게 배치하고 싶었다.